

일곱번째 이야기

주님께서 일하시네

[신앙에세이③]



Q. 선교사님~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한국은 오미크론으로 인해 정말 많은 분이 힘들게 지내는데 요즘 남수단은 어떤지요?

A. 네~~! 저는 이곳에서 코로나 오미크론과 상관 없는(?!!) 일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일상이 천국인 줄 이번 코로나로 인해 알게 되네요. 그래서 천국인 남수단에 오시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한국에 오미크론 확진자가 많아지고 날마다 체크하는 숫자의 무게감 속에 일상에서 제한을 받으시며 얼마나 마음이 힘드실까 생각하면 안타깝고, 속히 우리 조국이 일상으로 돌아오길 기도합니다.

Q.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갈라디아서 세미나(2월 28일~3월 4일)가 있었네요. 세미나 참석하신 분들과 세미나 분위기는 어땠는지요?

A. BEE의 현지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성공회 대주교의 지원으로 성공회 주바 교구에서 새롭게 시작한 이 그룹의 17분은 모두 헌신적인 귀한 분들입니다. DPM 과정을 잘 마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남수단 수도에 전기가 들어와서 처음으로 프로젝터를 사용하여 동일한

말씀 버전으로 함께 공부하고, 시간적 여유 속에 과정이 이루어지고, 말씀을 적용하며 풍성한 나눔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마가복음 세미나에서는 마지막 날 모여 과제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아침에 가서 그룹 리더에게 맡겼었어요. 마지막 날이라 식사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룹으로 토론하며, 과제를 다 마무리하여 제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히 여겨야 할 일이지만, 저에게는 처음 있는 일로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어요. 남수단은 분리 독립된 지 11년이 되었지만, 내전으로 8~9년의 시간을 잃어버렸고, 지금도 그 여파로 국민의 삶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하고, 그런 중에 말라리아와 장티푸스에 걸리는 것이 일상이에요. 집마다 왜 그렇게 장례가 많이 발생하는지... 일주일 전체를 헌신하여 세미나에 참여하는 것은 실로 주님의 보호하심뿐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Q. 또 다른 BEE 세미나들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그룹인가요?

A. 같은 그룹이 로마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어요 (5월 2일~6일). 장로교회 교단에서 새롭게 세미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1기 졸업생이자 재생산에 충실한 장로교 출신의 귀한 제임스 콘 목사님이 교단 교육담당자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담당자에게서 어느 날 갑자기 만나자는 연락이 와서 함께 나누고, 세미나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직하고 준비할 때는 세미나를 하기 위해 식사와 교통비 외 필요한 것들은 각 교회에서 후원하여 참석자가 세미나에 참여하기 때문에 사실은 각 교회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대일 세미나를하기로 하고 준비하는데(4월 18일~22일) 기도가 매우 필요하고, BEE 세미나가 장로교단에서도 공식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Q. 선교사님께서 BEE 세미나 말고도 ‘더 멋진 세상’과 함께 캐세리 마을을 세워가고 계시는 데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요?

A. 사실 교단 차원의 BEE 세미나를 하기 전에는 초교파로 각 교단에서 초청하여 형성된 그룹으로 세미나를 했었는데 2020년부터는 재정적으로 독립이 가능한 성공회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초교파 교단을 대상으로 할 때 알게 된 장로교 여성 목사님이 캐세리 마을 나무 밑에서 시작한 교회에서 가끔 설교 협력을 하였는데,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주님께서 ‘더 멋진 세상’을 통해 식량 구제를 하게 하시고, 캐세리 마을에 식수 공급을 위해 우물을 파면서, 2021년에는 남수단에 ‘더 멋진 마을 개발 사역’을 위해 캐세리 마을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보건소가 세워졌고, 마을 식생활수 공급을 위해 6번째 우물을 팠고, 올해 캐세리 장로교회는 건축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 고등학교가 없어서 장거리를 가야만 하는 캐세리와 주변 마을들을 위하여 고등학교 건축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남수단에서 캐세리 마을만큼 복을 받은 마을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생활에 가장 필요한 우물과 보건소, 교회, 학교가 들어서고, 때때로 코로나 긴급 식량 구제도 받고, 계속 ‘더 멋진 세상’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든 교회를 통해서 복음과 함께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어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어요. 물을 길으러 장거리 이동하지 않고 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그 물로 우물 주변에는 채소를 심고 가꾸어 생활의 필요를 채우고 있어요. 물이 넉넉하니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마을 안에 보건소가 있으니 육체의 건강을 돌볼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손을 흔들고 인사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을의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마을을 발전시키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기독교 공동체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그 길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듯합니다.

Q. 무척 바쁘게 지내시네요. 힘드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지요?

A. 사실 정말 바쁘게 지냅니다. 지난 일들이 어찌 이루어졌을까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현지인들이 준비되지 못하고, 일을 잘 진행하지 못하여 불필요한 손해가 많이 생기고, 헛수고하기를 반복하며, 가르치고 부탁하여도 여전히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감사의 표현을 할 줄 모르는 그들을 기다리며 참아야 하는 일들로 어느덧 마음이 상하고, 일 중심이 되어 제 마음이 메말라가는 것을 느낄 때면, 예수님을 부르며 십자가를 지나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날마다 QT를 통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저를 단련하고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자격 없는 저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놀랍고도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상한 나의 마음을, 일 중심이 되는 나를 부인하며, 주님의 언약을 강하게 붙잡고 부활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섭니다. 부활의 생명이 저로 다시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합니다. 또한 현지인 한 사람이 성실함과 겸손한 섬김으로 주님께 잘 서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되고 더욱 힘이 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후원자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격려로 힘을 얻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Q. 선교사님!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나누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A. 건강의 연약함이 늘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연로하고 불편하신 어머니와 어머니를 돌보며 고생하시는 막내 오빠에 대한 부담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긴 안식년 대신 안식월로 매년 한국을 갑니다. 올해도 예정대로 교회 헌당 예배를 드리고 나서 5월 중순 지나서 한국을 가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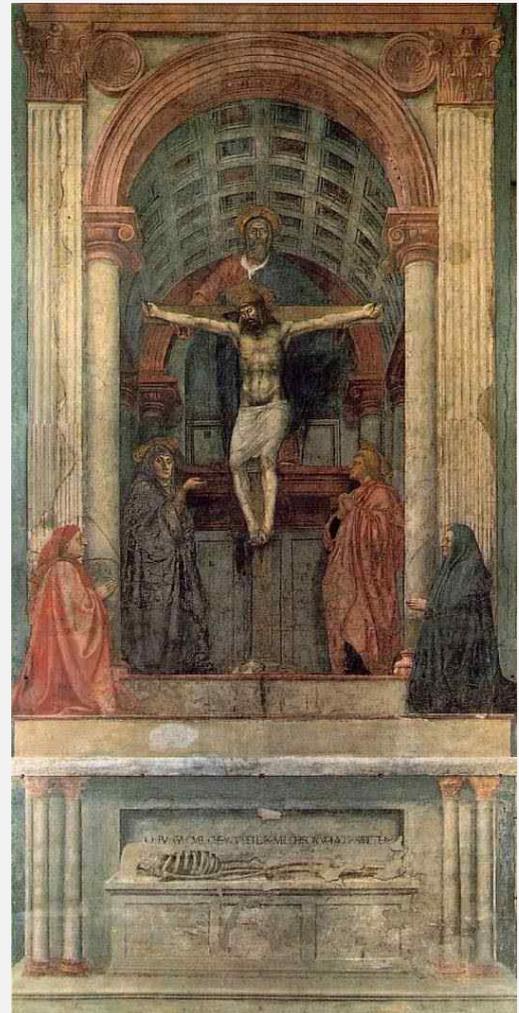
1. 성령 충만하고 건강하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2. 예정되고, 준비하고 있는 BEE 세미나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잘 준비되고 진행되도록
3. 교회 건축이 4월 말까지 잘 마무리되고, 헌당 예배가 잘 준비되고, 고등학교 건축도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캐세리 마을이 주님의 은혜 안에 더 멋진 마을로 세워지도록
4. 어머니와 막내 오빠, 둘째 오빠와 그 가정의 구원의 확신 속에 모두 강건하고, 큰오빠와 그 가정에 구원을 허락해주시도록



[정은희 선교사]
 1999년 GMS(총회세계선교회)의 파송을 받아 수단에서 사역하는 중 BEE Korea를 만나 2006년 BEE 협력선교사로 함께 사역하고 있다. 2013년 수단에서 추방당한 후, 2014년부터 남수단에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더 멋진 세상' 협력선교사로서 남수단에 더 멋진 마을 조성 사업을 위해 힘쓰고 있다.

[정리: 정주영 편집: 최선]

그림 속 His-story



성 삼위일체

(1425~1428년경, 프레스코화, 피렌체 산타 마리아 노벨라 교회)

초기 르네상스 화가 마사초의 ‘성 삼위일체’는 최초로 ‘선원근법’을 사용해서 그린 그림이다. ‘선원근법’의 사용은 회화에서 대단한 발견으로 2차원의 평면에서 3차원의 공간을 표현하는 획기적인 방법이다. 그림의 천장 부분을 보면 점점 뒤로 갈수록 작아지는 사각형은 1점 소실점으로 모이는 선원근법을 이용한 방법으로 깊은 공간감을 보여준다. 소실점이 있는 곳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뒤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흰색 비둘기로 표현된 성령님으로(성 삼위일체) 시선이 가게 된다. 예수님의 양옆에는 성모마리아와 사도 요한과 그 양옆으로는 이 벽화를 기증한 부부의 모습이 보인다. 작품의 아래에는 해골이 누워있는데, 이는 아담으로 추정된다. 그 위의 묘비명에는 ‘나 역시 한때 지금의 당신 같았고, 당신 역시 언젠가는 지금의 나와 같을 것입니다.’라고 쓰여있다. 속세에서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BEE 소식

1. 2022년 “일상을 넘어 풋대를 향하여” 일상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BEE 가족을 축복합니다.
“풋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3:14).”
2. 4월 16일(토) 6:30, 토요일기도모임은 Google Meet로 진행됩니다.(*유튜브 영상 없음*) 부활절을 기념하여 상의 드레스코드는 red 또는 white로 착용하고 실시간 영상으로 모두 모여 기도합니다.